

가정의 달 지상법석

보은하는 삶을 삽시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입장지으면 어떤 선업을 지어도 소용없습니다”

막이고자 입의 것도 뱉어 주시니 이 얼마나 고다운 일입니까. 마른지리는 지식 누이고 진자리에 누우시는 은혜가 다섯번째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부모님 은혜만 얘기 했지만 앞에서 말한 네가지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온당한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때에 조금씩 거르지 말고 챙겨 드려야 합니다. 한꺼번에 맞난 것 많이 드려서 병을 얻는 여러적음을 방해하는 안됩니다.

아홉번째 은혜는 자식을 위해서는 나쁜 업도 지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악업을 지어 지옥갈 것을 좋아 하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 하는 것은 어쩌면 종교적 교설을 뛰어 넘는 것일 겁니다.

안된다는 교훈을 얻고 그 어머니의 효부

‘孝’는 보살행의 근본... 수행 과정으로 삼아야 윤회알면 모든중생 내부모 “처처에 공양하자”

니 저 한몸 잘 살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아 부모로 하여금 걱정 짓지 않게 하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마지막은 끝없는 자식 사랑으로 애대무시는 은혜인데 웅주사본 부모은중경의 그림을 보면 백살된 어머니가 여든살 된 자식 걱정애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효의 당위성이라 보살행의 근본으로 강조되고 있는만큼 수행의 한 과정으로 효의 실천을 삼아도 무방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삼이 참으로 값진 것임을 인정 했다 합니다.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물어 보십시오.

그러나 자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중학생만 되어도 부모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만 하려 한다더군요.

언제나 온당한 삶을 지어 가면 효와 보살행이 저절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았듯이 모든 사람이 신체와 정신을 건강히 지니고 보은의 삶을 가꾸어 나갈때 우리 사회는 5월의 저 무성한 대지처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모든 공양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다른데 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성히 한다고 공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공손 해야 합니다. 불인하다는 것은 대개 망령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부모의 망령도 자식의 죄에서 비롯됐음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자연현상에서 이중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반야심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오직 반야지를 터득한 사람만이 이 직관으로 그 무엇을 꿰뚫어 보고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空)을 이해하고 불조(佛祖)의 가르침을 받들고 따를 뿐 대부분의 불교도들에게 부처님은 단순한 경배의 대상에 불과하였다.

부처님오신날 축하 광고 안내. 불기 2540년(丙子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범음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 특집 신문을 꾸미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바쳐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지우려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력을 증대하며 신(神)과 기도에도 좋습니다.